

# 정보화사회광장

## 체신부

### ‘정보화 5개년 계획’ 수립 추진

체신부는 정보통신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고 정보화사회에 대한 정책비전을 제시하기 위한 정보화 5개년 계획을 수립, 추진키로 했다.

체신부는 이에따라 92~96년간의 국가사회정보화 5개년계획을 올 하반기중 확정키로하고 통신개발연구원을 중심으로 학계 연구기관 기업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기로 했다.

체신부가 검토중인 정보화 5개년계획은 지난해 발표한 정보화사회종합대책의 12개 과제별로 구체적인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실행가능한 우선 추진과제를 선정 범정부차원에서 밀고나간다는 내용으로 되어있다.

체신부의 한관계자는 정보화 5개년계획의 핵심과제로는 중소기업의 정보화를 통한 대외경쟁력강화와 정보통신부문의 고급인력양성, 정보기술의 표준화 및 지역정보화와 단말기보급등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체신부는 또 정보화 5개년 계획의 수립과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정보통신산업에 대한 정확한 통계자료가 시급하다고 판단, 4·5월중 국내 정보통신산업에 대한 대대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체신부는 이와함께 정보통신산업의 관건인 소프트웨어(SW)기술개발을 위해 올 9월중 국내 SW기술현황을 조사, 연구개발분야 및 중점 개발과제를 선정할 계획이다.

체신부는 특히 지역정보화의 경우 체신부및 산하기관은 전기통신홍보관및 데이콤플라자, 과기처는 테크노벨트, 상공부는 뉴미디어시티 등으로 제각기 추진중인 현실을 감안, 이들 유사관련계획을 연계해 지역실정에 맞는 정보센터를 구축키로 하고 관계부처와 긴밀한 업무협조로 11월까지 지역정보화추진 기본계획을 마련, 정보화 5개년 계획에 반영키로 했다.

### 디지털 이동통신 시스템 앞당겨 개발키로

체신부는 최근들어 급증하고 있는 이동통신수요를 충족키 위해 전자통신연구소(ETRI)에서 오는 96년까지

개발키로 한 디지털이동통신 시스템 연구기간을 2년정도 앞당기기로 했다.

체신부는 이를 위해 ETRI 주도로 관련통신업체들이 단말기를 비롯, 기지국·교환기 등 분야별로 개발을 분담하고 국내에서 개발하기 어려운 핵심기술은 외국으로부터 도입키로 했다.

체신부는 또한 이동통신시스템의 효율적인 연구를 위해 산·관·연 연구관련 실무진으로 구성된 「연구관리단」을 운영하고 이동통신관련산업의 정책협의 및 심의를 맡을 「전파산업협의회」 구성을 검토중이다.

체신부가 오는 94년까지 개발 및 실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는 디지털이동통신시스템은 관련교환기 및 단말기·기지국을 비롯해 최근 선진국에서 본격 실용화되고 있는 차세대 코드리스폰인 「CT-2」 「CT-3」 및 개인휴대통신(PCN)이다.

### 국제 정보통신사업 민간에 개방

체신부는 그간 정보처리와 정보축적서비스로 제한해 온 민간의 정보통신제공서비스

를 4월부터 국제간의 정보검색·정보처리서비스와 정보의 단순전송 및 단순교환서비스 분야까지 확대키로 했다.

체신부가 지난달 9일 마련한 올해 정보통신업무계획에 따르면 이같은 방침은 오는 7월의 정보통신시장개방에 대비 국내사업자의 대외경쟁력을 높이고 사업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것이다.

체신부는 또한 정보통신서비스의 대외개방추세에 대처, 기존의 정보통신역무제공업자에게 국제정보통신사업을 전면 개방키로 하고 이에 필요한 상대국가와의 협정을 올 상반기 중에 체결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기업의 공동전산망구축을 위한 특정통신회선의 공동사용범위도 그간 국내 특정통신회선에만 허용해 오던 것을 앞으로는 국가 및 공공기관이나 기업의 본사·지사·계열회사의 경우 국제분야에도 공동사용토록 했다.

## 무궁화호 도입 구매방침 확정

체신부는 지난달 19일 무궁화호 통신방송위성의 위성체 제작과 발사체용역의 주계약자는 경험이 많은 외국업체로 하되 국내업체가 협력업체로 참여토록 하는 등의 무궁화호성 도입구매방침을 확정했다.

체신부는 구매계약주체를 조달청이 아닌 한국통신이 맡도록 했으며, 입찰방법은 국

제적인 마찰의 소지를 줄이기 위해 제한경쟁이 아닌 일반경쟁방식을 채택하기로 했다.

또 위성체제작과 발사체용역을 일괄계약(던키 베이스)으로 하지 않고 각각 분리해서 계약한다는 것이 체신부의 방침이다.

이 구매방침에 따르면 시스템설계 기술은 한국전자통신연구소와 항공우주연구소를 중심으로 희망업체가 참여해 현장실무를 통해 기술이전을 받게 되며 운영유지 기술은 한국통신이 현장기술 습득을 통해 이전받게 된다. 부품기술은 자원에 의한 계약으로 기술이전을 추진하게 된다.

## 한국통신

### 단말기 4만5천대 보급키로

한국통신은 금년중 정보검색단말기 4만5천대를 이용자에게 무료 또는 유지보수비만 받고 보급키로 했다.

한국통신이 마련한 정보검색단말기 보급계획에 따르면 1백12억원의 예산을 들여 오는 5월 1차로 서울 여의도, 경기도 과천, 광주지역에 단말기 1만대를 보급하고 11월중 서울·부산·경기·전남지역에 3만5천대를 유상임대키로 했다.

1차 구매분 1만대는 지역특성과 가입자들의 직업을 고려, 선착순으로 보급, 92년말

까지 임대료를 받지않을 계획이다. 2차 구매분 3만5천대에 대해서는 단말기당 월3천원선의 유지·보수비를 받고 희망자에게 나누어 주기로 했다.

한국통신은 오는 96년까지 3백만대의 정보검색단말기를 보급, 정보화시대를 앞당길 계획이다.

### 통신선로 도면관리 전산화

한국통신은 통신시설의 선로공사와 보수공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통신선로 도면관리 전산시스템을 개발했다.

한국통신은 지난달 14일 도로망과 전화국 지하매설선로 등 각종 통신시설물의 도형을 컴퓨터에 수록한 이 시스템을 개발 제주 및 서울 여의도지역에서 시험운용을 끝내고 올해부터 94년까지 전국전화국에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시스템은 금년중 충남 관할전화국, 92년에는 서울·경기·부산·충북지역, 93년 전남 대구지역, 94년에는 전북·강원지역에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통신시설공사를 위한 설계도면은 그동안 손작업으로 작성돼 도면위에 여러가지로 표시되는 케이블의 복잡성때문에 판독이 어렵고 시설물의 변동때마다 설계도면을 재작성하는 등 번거로움이 많았다.

### GATV 첫 시험방송

국내 최초의 종합유선방송

이 4월15일 첫 기술시험방송을 시작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청자가 선택, 시청함은 물론이고 유선방송시설을 이용하여 시청자 가정의 방법, 방재 정보등의 데이터 송수신이 가능한 이른바 양방향 종합유선방송시대가 시작된다.

한국통신은 4월1일 서울목동전화국에 위치한 종합유선방송시범사업단에서 종합유선방송기술시연회를 갖고 종합유선시범방송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방송시설의 기술적 인 능력을 평가한다.

한국통신은 이날 시연회를 통해 설치된 기자재를 종합 점검한 후 4월15일부터 목동과 상계동지역의 시범방송을 희망하는 6천여 가구를 대상으로 기술시험방송을 실시하며 7월부터 시범방송에 들어간다.

4월15일부터 6월 말까지의 시험방송은 하루 30분~1시간 30분 정도 송출되며 7월부터의 시범방송은 3개 채널로 TV정규방송시간을 피한 하루 5시간 정도의 방송프로그를 송출할 계획이다.

한국통신이 계획하는 프로그램채널은 총13개 채널로 TV중계용 4채널, 영화, 지역 정보, 스포츠, 어린이, 교양 등 자체방송 3개 채널, FM방송 중계용 3채널, 그리고 방방, 방재, 원격검침, 비디오텍스 등 데이터통신을 위한 3개 채널로 구성되어 있다.

## 1급 직원 인사

한국통신은 지난 3월 18일 1급직원 인사를 실시하고, 전보, 파견, 승진자를 발표했다.

### ◇ 1급 직원 전보 ◇

- 홍보실 기업문화국장  
薛 鎭 石
- 서울사업본부(국장)  
丘 廣 光
- 서울사업본부(국장)  
金 明 鎭
- 경기사업본부(국장)  
尹 大 源
- 경기사업본부(국장)  
陳 英 鉉
- 경기사업본부(국장)  
嚴 在 建
- 전남사업본부(국장)  
金 禹 植
- 충북사업본부(국장)  
李 英 淳
- 충북사업본부(국장)  
河 鍾 秀
- 선로기술연구소 토목연구부장  
趙 榮 柱

### ◇ 1급 직원 파견 ◇

- 한국전자통신연구소 파견  
徐 容 熙
- 사업개발단(EXPO 통신사업추진반) 파견  
姜 信 源

### ◇ 1급 승진 ◇

- 부산사업본부(국장)  
田 炳 燮
- 부산사업본부(국장)  
崔 萬 永
- 강원사업본부(국장)  
南 重 秀

- 충북사업본부(국장)  
鄭 泰 守
- 한국통신기술(주) 파견  
盧 台 錫

## 상 공 부

### DB·네트워크 구축자금 지원

상공부는 지난달 12일 중소기업정보화계획개정안을 확정, 그간 소프트웨어개발 등에만 국한시켜 오던 지원범위를 확대, DB 및 네트워크의 구성과 운영에도 5억원 한도 내에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범위는 DB구축 및 정보네트워크구성사업 추진에 직접 필요한 컴퓨터시스템과 이에 연결되는 주변기기 및 기계장치 구입비·DB제작에 필요한 인건비·자료비·자료수집비·기타경비 등이며 지원조건은 연리 6.5%로 3년거치 8년이내에 상환하면 된다.

그러나 계열기업군 여신관리규정에 따라 선정된 계열기업군 및 대상기업체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상공부는 또 중소기업정보화계획에 따라 이미 추진돼온 사업임에도 명문화되지 않았던 범용소프트웨어 개발사업도 이번 개정안에 반영 중소기업의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해 중소기업자가 범용소프트

웨어를 개발할 경우 소요 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범용소프트웨어 개발사업 지원금은 3억원한도내에서 연리 7.5%로 대출되며 2년거치 5년이내에 상환하도록 되어 있다.

## 총 무 처

### 행정전산망 본격가동

총무처는 지난달 22일 제 1 정부종합청사에서 노재봉 국무총리를 비롯한 관련인사 2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등록·부동산·고용·통관·자동차·경제통계등 6대 우선업무의 행정전산망 구축에 관한 평가보고회를 갖고 행정전산망방식에 의한 업무처리 시연회를 가졌다.

이번 시연회는 정부가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대비, 그동안 추진해온 행정전산망사업 중 먼저 6대우선업무의 전산망 골격을 완비한 데 따른 것으로 3월말부터 본격 가동함에 따라 행정기관의 민원업무 처리시간이 대폭 단축되는 등 국민생활이 더욱 편리하게 되었다.

## 특 허 청

### 정보자료국 신설

특허청은 지난달 15일 정보자료국을 신설하는등 일부직제를 개편해 총91명의 인력을 증원했다. 신설된 정보자료국

에는 정보기획과(신설)와 전산과(이관), 자료과(이관)를 두고 특허기술 정보제공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한편 심사·심판·검색의 전산화를 적극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함께 특허출원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전자·정보통신분야의 심사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기존 정보통신심사과를 정보심사과와 통신심사과로 분리했으며 산업재산권의 인식제고와 對국민홍보를 위해 공보담당관을 신설했다.

## 중 소 기 업 진 흥 공 단

### 중소기업 정보화 자금지원

중소기업진흥공단은 22일 울들어 처음 신영하이테크등 9개社의 개별정보화계획을 승인하고 이들업체에 총 10억1천1백만원의 장기저리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개별정보화사업은 컴퓨터를 이용한 중소기업의 공장자동화와 경영관리전산화를 촉진하기 위해 중진공이 컴퓨터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구입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중진공은 지난해 2백83개社에 2백34억원을 지원했었다.

중진공은 올해 정보화사업 예산이 축소됨에 따라 1백34개社에 1백24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 한국전자통신연구소

### 비동기식 교환기 개발추진

대용량디지털교환기인 「TDX-10」개발이 끝나는 올해부터 이 보다 한단계 차세대기술로 평가되고 있는 비동기식교환기(ATM)개발이 본격 추진된다.

한국전자통신연구소(ETRI)는 올해부터 오는 94년까지 4년간 총2백78억원의 연구개발비를 투입, 광대역종합정보통신망(B-ISDN)용 디지털 교환기인 ATM기술을 확보키로 했다.

지난달 2일 한국통신에 따르면 ETRI는 이를 위해 개발 1차 연도인 올해에는 광대역 접속용 요소기술개발과 스위칭구조를 확정하고 내년부터는 접속모듈과 스위치를 설계·제작키로 했다.

또 94년까지는 상용화될 ISDN과의 연동실험을 거쳐 B-ISDN시범서비스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ETRI는 현재 TDX-10의 비음성기능과 ISDN기능을 개발중인 TDX연구인력을 오는 94년이후엔 ATM개발에 투입할 예정이다.

ETRI는 이와함께 B-ISDN을 상용화하기 위해선 ATM 기술뿐만 아니라 1백50Mbps 급이상의 고속전송기술과 초고집적반도체기술개발도 시급하다는 점을 감안, 올해부터 이와 관련된 연구개발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